

美 해군, 호크아이 구매 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

미 해군의 공중조기경보(AEW) 항공기 E-2C 호크아이 가 국방부의 조달 개혁에 대한 모델로써 선발되었다. 미 국방부 조달 총책임자인 폴 카민스키는 새로운 조달 방식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E-2C에서만 3억 7천만 달러가 감소될 수 있다고 한다.

노드롭그라만사는 2015년까지 36대의 새로운 E-2C를 구매하며 낡은 항공기들은 업그레이드한다는 미 해군의 결정에 따라 10억 달러 이상을 벌게되었다.

동 사는 최근 새로운 Group 2 E-2C기 36대중 첫 번째 항공기를 공개했는데, 미해군은 지난해 말 Group 2형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12대의 Group 1 E-2C중 첫 항공기를 인도받았다. Group 2형에는 구조적 향상과 전자장비시스템에 대한 업그

레이드가 포함되어있다.

동 사는 호크아이 2005라 불리는 또다른 개량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작업은 현재의 APS-145 레이더를 노드롭그라만사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전자 주사-배열(electronically scanned-array) 레이더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中 공군, 프랑스 라팔/M88 구매 고려

프랑스와 중국은 중국 공군이 닷소 라팔 차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조달부문의 고위 관리를 포함한 중국측 대표들이 96년 닷소사를 방문하였으며, 최근에는 라팔 엔진제작업체인 스넵마가 포함된 프랑스측 대표들이 상당한 기간 북경에 머물렀다.

닷소와 스넵마사는 중국이 프랑스의 둥 전투기와 이와 관련된 M88 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는 것을 확인했으나 더 이상의 언급은 거부했다.

중국 공군은 몇 가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진행

시키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호이 Su-27 Flanker의 면허생산은 물론 Chengu F-10, FC-1이 포함 되어있다.

중국의 소식통은 의하면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군의 주 관심사는 라팔이 아니라 M88 엔진을 얻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F-10(이스라엘과 공동 개발중)과 F-1의 경우 초기에는 러시아 엔진을 탑재하려는 계획이었다. 중국의 목표는 러시아 엔진에 대한 양자택일으로써 다른 후보를 찾는 것일 수 있다.

북경의 소식통은 프랑스 관리들은 엔진만 독립적으로 거론하는 것보다 M88과 라팔을 하나로 묶어서 논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닷소사는 현재까지 프랑스 공군의 주문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팔을 수출할 고객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추정에 의하면 프랑스 공군은 2005-2014년 사이에 단지 140대 가량의 라팔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저조한 생산율로 인해 대당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美 국방부 추가로 JSF 협력자 물색

미 국방부는 더 많은 국가들이



E-2C는 국방부에 의해 비용 절감을 위한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JSF(Joint Strike Fighter)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full-partner인 미국과 영국은 4월말까지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가 동의각서(MoA)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계약서는 JSF 계획에서 이 국가들의 제한적인 참여방식을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캐나다도 올해 안에 JSF MoA를 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기밀로 분류되지 않는 JSF 정보 브리핑을 받은 바 있다.

록히드마틴 C-130J 실속 문제 해결하려

록히드마틴은 새로워진 추진 시스템으로부터 달갑지 않은 실속 특성이 생겨나자 C-130J 허큘리스에 스틱 셰이커(stick shaker : 조종사에게 경고하기 위해 실속이 생기기 전에 조종관이 떨리게 함)를 장치했다.

록히드마틴의 항공부문 회장인 미키 블랙웰은 '면밀한 시험'을 수행한 후 이 문제에 대한 공기역학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는 보류되었으나, 미국의 민간 인증이 이루어진 후 9월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획에 없었던 Vortex generator, Fence, Stall strip에 대한 시험이 동 항공기의 인증이 거의 1년이나 지연되고 있는데 부분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몇몇 하도급업체의 인도 문제로 인해 이미 일정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그는 새로운 디지털 조종실에 사용될 액정 디스플레이(LCD)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LCD의 공급자를 캐나다의 Litton Systems에서 미국의 ADC로 바꿨다고 밝혔다.

러, 카모프 Ka-50 개량

러시아의 헬리콥터 제작업체인 Kamov는 Ka-50 Hokum을 어떤 기상조건에서도 기동이 가능한 공격용 헬기로 개량한 Ka-50N을 개발하고 비행시험을 시작했다. 동 헬기는 더욱 성능이 뛰어난 센서를 채용하고 있다.

Ka-50N의 원형기에는 톰슨 CSF가 생산한 것으로 알려진 전방 적외선 센서(FLIR)가 장착되었다. 구모양의 센서는 Shkval-V 감시 시스템 위에 장착되어 있는데 이 것은 2인승 개량형인 Ka-52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공 모양의 센서가 로터 축전방의 상관에 장착되어 있다. 이밖에 야간투시경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또하나의 텔레비전 디스플레이가 조종석에 추가되었다.

Kamov에 의하면 Ka-50N 원형기의 FLIR 센서는 아직 무기시스템과 완벽하게 결합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동 사는 역시 hokum에 밀리미터 파(millimeter-wave) 레이더인 Arbalet을 탑재하려고 하지만 아직 K-52나 K-50N에 장착하여 비행을 실시한 적은 없다.

현재까지 Kamov와 Mil은 Mil Mi-24 Hind를 교체하고자 하는 러시아 육군에 공격용 헬리콥터를 공급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Hind를 교체하는 것이 임박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방부는 아직 적정한 수의 Hokum이나 Mil의 Mi-28 Havoc을 조달할 만한 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다.

러시아의 두 설계국은 또한 자신들의 헬리콥터의 수출을 꾸준히 제안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12대와 15대에 해당하는 Ka-50에 대한 두 가지 계약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으며 알려지지 않은 두 나라는 슬로바키아와 미얀마로 예측되고 있다.